

方言研究法

支 平 孝

目 次

第一 調 查 法.....

一. 調查方法的 種類 및 그 長短.....

——臨地調查 通信調查 內省的調查 文獻上調查——文獻上調查의 難點——內省的調查의 短點——通信調查의 短點——臨地調查의 長點 調查者가 加추어야 할 知識——。

二. 調查準備의 몇 가지.....

(1) 調查對象者의 嚴選.....

——調查事項 質問事項의 選定 調查地點의 劃定——調查對象者 (話者)의 重要性——話者도 無識한 六,七十歲老人이 理想的인 口——問答의 困難——地方人을 帶同할 것——話者의 身邊에 있는 實物을 指示하면서 質問할 것——調查者는 話術이 있어야 함——話者는 三,四人으로——各話者의 語音은 다 記敍하여야 함——。

(2) 調查地點의 選定.....

——全國的調查의 境遇郡單位程度로——行政區域郡과 方言區劃郡과 의 不一致——方言中心地着定의 重要性——方言의 混流——中心地着定上 注意——方言周圍說——山岳地帶 島嶼地方 隔離된 村落 國境邊의 調查必要——。

——地方別調查의 境遇 邑面單位或은 數個村落單位程度로——調查區域은 言語, 風習의 類似性을 標準으로 定할 것——分布圖作成上의 不便——方言區劃과 中間地帶——全國的調查時와 地方別調查時와 의 地域區分分別은 規定的이 아님——。

(3) 調査事項의 選定.....

——調査事項의 重要性——全國的 調査事項——地方內의 調査事項
方言에 對한 一般認識과 그 範圍——方言研究의 不可避한 限界——
地方別 方言學者 出現의 緊要性——調査事項은 大概 그 地方 特殊語
에 局限되여 짐——標語와 方言과의 不一致——。

(4) 音聲表記에 對하여

——表記文字——音聲記述은 方言學의 根據가 됨 —— 音聲記
述의 可能限界——

第二. 研究法..... (二輯에)

- 一. 音韻의 研究..... (〃)
- 二. 語法의 研究..... (〃)
- 三. 語彙의 研究..... (〃)
- 四. 方言分布圖의 作成..... (〃)
- 五. 方言集의 編纂..... (〃)

第三. 餘 言..... (〃)

第一. 調 查 法

一. 調査方法의 種類 및 그 長短

方言研究는 먼저 方言調査에서 出發하게 된다. 方言調査라 해도 臨
地調査, 通信調査, 內容의 調査, 文獻上調査等々 여러가지 方法으로 할
수 있다.

文獻上調査는 한 地方의 言語에 關한 여러 文獻을 모여 놓고 거기에
記錄을 것을 서로 比較하면서 語휘를 採集하여 내어 調査하는 것이다.
文獻의 表記를 通하고서 實地 發音音聲을 洞察하여 내어야 하며 또

한 表記法의 性質을 正確히 把握함과 同時에 그表記에 誤字나 脫字가 있나없나도 細密히 살펴 봐야한다. 이와같은 方法이란 實히 困難한일인 同時에 效果도 그대 發揮할수 없는일이라겠다. 한時代前의 方言을 研究하는것이든 모르거니와 現在의 方言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方法은 避하여야 한다.

다음 內省的方法이란 이터하다. 自己故郷말에 對해서는 只今 現實에 話者의 語音을 아나 듣더라도 內省하여 記錄하여 넣을수있는것이다. 日常 주고받던 얘기들을 念頭에 생각하여 내면서 不充分하나마 調査할수 있다. 그러나 郷土에 있으면서이면 모르지만 제故郷을 멀리 떠나고서 他地에서 純全 內省式으로만 記錄해 보자함은 無理이다. 故郷말일지언정 他地方에 있으면서에는 意外에도 생각이 잘안나는 것이요 또 故郷을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사람 말의地方的인 特色이란 잃어버리고 마는것이다. 기껏 된대도 나날이 他地方 사람들과 接觸하면서 淘汰當하고 修正當한 말을 갖고 純粹한 제故郷말로 잘못 認識하여 調査記錄해 놓는데 지나지 못한다. 萬一 이 方法으로도 充分히 方言調査를 해갈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坊々曲々의 方言을 調査할수 있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서울이라면 各地方人들이 모인곳이니 그들이 接受하는 方言을 볼수야 있겠지만 그方言은 地方的特色을 지닌 純粹한 方言이 못되고 이地方말과 저地方말과가 섞여진 大端 不純한 方言임을알아야한다.

또通信調査란 것은 調査事項을 選定하고서 劃定된 調査地點에 郵送하여 그地方에 있는 他人으로 하여금 調査回報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이 境遇에는 實地 調査에 臨하는이가 音學的 知識 即 그方言의 音聲, 어법에 對한 知識을 가진 사람이면 어느程度 믿으렵지만 그런 素養이 없는분이 記錄한다면 그는 不正確하고 不充分한것

이 되고말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調査者가 반드시 學者일 必要는 勿論없다. 아니 學者일 境遇 모리혀 좃지못한 結果를 갖어오는 수가 往*히 있다. 學者가 調査者일 境遇語音を 事實대로 記錄이 못하고 方言의 現象을 獨斷的으로 曲解하는수가 많음으로서다.

끝으로 남은것은 臨地調査이다. 調査者가 調査할 地點에 까지 나아가서 그地方人들이 아무 忌憚없이 주고받는 말들을 곁에서 슬그머니 들으면서 正確하게 記錄하여 내는것이다. 이런 自然的인 調査方法으로 여러方面의 語彙를 極盡하리만큼 蒐集하여 거기에서 語法, 音韻 등의 法則을 찾아내고 나아가 그方言의 特色을 밝힌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理想的인 方言研究가 될것이다.

우에서 調査方法을 서너가지로 分類하여 말하였지만 그것들은 結局 文獻에 依하는것과 聽取에 依하는것과의 二種이라 하였다. 하나를 눈에 依한 調査라 한다면 다른 하나를 귀에 依한 調査라 할수있다. 實際 方言研究에 있어서 눈에 依한 調査는 필수목이면 이를 避하여야한다.

臨地調査의 方法으로 理想的인 方言研究를 하려면 短時日內의 旅行으로서는 到底히 바랄수없는 일이다. 그地方에 永住하거나 或은 數年 居住하는이가 아니면 不可能한 일이다. 元來가 方言研究란 한地方의 말만을 對象으로 하는境遇라 할지라도 그言語現象 全般에 걸쳐 남김없이 採集究明하려면 그地方에 사는 그地方人이 아니고는 期할수 없는일인 것이다. 아무리 專門家라 할지언정 短時日內에 한地方의 言語現象을 細密하게 觀察하기는 不可能한 일이다. 그地方에서 헤어나고 그地方에서 成長하고 그 地方事情에 能通한 地方人이라야 비로소 完全한 研究가 이루어질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그地方出身이면 그만이나 하면 그렇지 않다. 多年間 方言을採集하고 있는 地方人이라 할지라도 言語에 關한知識과 相當한 素養이 없으면 그의 採

集한 結果가 專門家의 短時日內에 採集한것만 못하는 수가 많다. 마치 그것은 植物採集에 있어서 植物學者의 短時日內의 採集이 多年間 好事끼리로 植物을 모은 사람의 採集보다 훨씬 價値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學者는 全國的 植物分布를 알고있어 採集할것과 採集안해도 좋은것과를 識別하고 있지만 好事끼리로 一地方에 植物이나 採集하여 보지는 않는 이러한 識見이 없음으로 해서 그저 採集한다는 것이 殆半 價値없는 것을 모으게되고 가끔 貴重한 標本을 採集하여도 그保存과 整理를 잘못하여 無爲에 그치고 마는 수가 있다.

이와같은 形便으로 方言研究者는 그地方出身일것과 方言學的 知識을 가질것이 要請된다 兼하여 그地方의 事情과 各部門에 關한 該博한 知識을 갖추어지면 더욱 理想的이다. 一地方의 言語現象 全般에 걸쳐 採集하려면 天象, 地理, 人倫, 農耕家屋, 動植物等々 各部門別로 調査를 하여야 하는데 天象에 關한 말을 모을때엔 天文學의 知識이 必要하고 人倫에 關한 말을 모을때엔 人倫에 對한 知識이 必要하고 農耕에 關한 말을 모을때엔 農事에 對한 知識이 必要하고 動植物에 關한 말을 모을때엔 動物學의 知識이 必要하다. 그런데 이들 知識은 많이 갖추어지면 많이 갖추어질수록 調査採集하는데 도움될點 많고 有益한點 많다. 하되 이들 知識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없으면 없어도 될수는 있는것이다. 그러나 調査者가 音聲에 關한 知識 即 音聲學과 語法學의 知識만은 先具條件으로 習得하여 두어야한다. 이런 知識이 없는 調査者의 採集은 方言調査로서의 價値가 없게된다.

二 調査準備의 몇가지

(1) 調査對象者(話者)의 敍選

臨地調査를 하려고 할境遇에는 出發에앞서 몇가지 準備을해

야한다.

첫째 그地方 및 隣接地方의 方言에 對하여 어떠한 方法으로나 理解力을 積미두어야 하며 或是 그地方 方言에 對한 書籍이 있으면 그를 精讀하여 方言의 大體를 把握해, 둘째 同時에 調查事項 質問事項들을 選定 整理하여야한다.

셋째로 몇몇 곳에 調查地點을 劃定하여야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準備할 事項이야 있겠지만 于先 이만한 準備물 無가지고 그地方에 들어가서는 適當한 話者를 만남이 第一重要하다.

調査對象者 即 話者는 方言研究의 根源이 될 費料를 提供해준다. 그가 對答해주는 말은 方言研究 基礎資料가 되며 方言學의 出發點이 되는 것이다. 이 話者如何에 따라 方言學의 生命은 左右된다. 을 따를 方言을 提供해 주고안해준은 오직 話者에 달린 것이다. 이만침 話者의 選擇은 重且大하다. 萬一에 話者를 現代式 教育을 받아 日常會話에 標準語를 마구 쓰는 사람으로 擇했다든지 또는 他地方 出入이 甚하여 純粹한 方言을 保持 못하고 있는 이로 擇했다던지 하면 그 採集되는 方言은 臨地한 그地方의 方言이 아니라 외산 地方의 方言을 採集하고 있는 노릇이 되고 만다. 이러하여 理想的인 話者라 면지 識이 없고 나이 많아 적어도 六, 七十程度이고 별로 他地方에 出入이 아니하는 그地方 純土俗生活에 무쳐 있는 이것이지만 이런이는 젊은 洋服입은 醫生이 찾아가면 말 應答으란커녕 或 무슨 調査나 다니지 않나 하고 疑아하는 눈으로 이쪽 눈치만 살핀다. 게다가 이쪽에서 採集簿를 내놓고 手帖이나 꺼내면 더욱 疑心과 恐怖에 쌓인다. 그러면서도 再, 三强要하여 가면 아니 應答하였다가는 무슨 죄나 當하게 앉을까하는 생각에서 對答은 해주되 그對答은 全然 歪曲된 謊言이다. 謊言만이 歪曲될 뿐 아니라 말을 全然 對答해 주기

도 한다. 이쪽에서 方言을 무어라고 거느리면 이쪽뜻을 거스리지않
 겠다는 마음에서 그저 묻는대로 「에...에...」하고 對答해 버린다. 筆
 者는 이런 境遇를 여러번 당했다. 이럴때 調査者는 慎重을 期하여
 야한다. 「에, 에」對答하는 것을 全部 註어 쓰어놓는다면 그것은 方言採
 集이 아니라 이쪽말을 記錄하여 논는것에 不過한것이 되고만다. 이
 와같은 境遇를 免키爲해서는 그地方사람을 帶同하고 老人에를 찾아
 다녀야한다. 그地方사람으로 하여금 老人에게 用件을 仔細히 말음하
 여 充分 納得시킨 後에 對함이 좋을것이다. 그리고는 그저 閑談비
 듯이 이야기를 주고받고하여 選定된 語彙를 調査하여야 한다. 그要
 領은 漁村이면 海魚 및 漁業의 이야기, 農村이면 農具 및 農事
 의 이야기, 木工이면 道具, 家具 및 建築의 이야기 와같이 話者가
 잘알고 있는事項을 물어야하며 또는 話者의 身邊에 있는 實物들을
 가리키면서 그稱呼를 듣는式으로 하겨야한다. 또 그季節 이야기며 民
 俗에 關한 閑談을 하면서 그部問의 方言을 調査하는 方法을 取함
 도 좋은것이다. 이때 注意할점은 이쪽이 먼저 물어져서 閑談弄談비
 듯이 이야기를 하여가지 않으면 저쪽이 좀처럼 나오물 안한다는것
 이다. 老人에로 하여금 숨김없이 이야기가 터져 나오도록 하겨져야한다.

話者는 단한사람으로 할것이아니요 三人程度는 있어야 한다. 혼자
 자보다 二, 三人이 모여앉아야 이야기로 自然 물어져 閑談式으로나
 오고 참다운 方言이 지껴려진다. 調査者는 虛心坦懷, 이를話者가 發
 聲하는 語音을 貴重히 記錄하여 놓을것이지만 말에 따라 A話者의
 말과 B話者의 말과가 서로 다르더페도 조금도 이상히 여길것은없
 다. 一話者의 方言은 어찌까지나 그話者個人의 方言에 그칠따름이요
 他話者에게까지 억지로 그말을 쉐와서는 안된다. 一調査地點에서 三
 人의 話者가 있다고하면 三人의 方言이 各々 다를수도 甚々히 있

는 것이다. 各人의 言語經驗은 얼마든 다를수 있는것으로 A가 아는 것을 B가 모로기로 하고 B가 아는것을 C가 모로기로 하고 C가 모로는것을 D가 안다는 것쯤은 極히 尋常한 일이다. 이때 다른것은 바쁜데로 三人의 方言을 全部 記錄해 넣어야한다. 어느 一人의 것만 記錄하고 만다면 정작 採集하여야할 重要한 資料를 빼 놓아버릴 憂慮가 많다. 이럼으로 調查對象者는 一, 二人에 限할것이 아니요 三, 四人程度가 좋을것이다.

(2) 調查地點의 選定

다음 調查地點의 選定은 두어가지 觀點에서 하여볼수있다. 全國的 調查를 目標로 할境遇와 地方別 調查를 目標로할 境遇外에 따라 調查地點 選定上 差가있다.

먼저 全國的인 調查의 境遇를 말해보면 첫째 方言圈을 크게잡게 된다. 한도를 基準으로하여 그道地域안에서 아무리細密히 調查하려하려해도 大概는 一郡을 中心으로하고 郡單位로 方言圈을 劃定하고서 調查하게됨이 一般的 形便이다. 이 郡이란 行政區劃線上的 郡은 아니다. 行政區域으로서의 郡과 方言分布狀況에서 보아 一郡單位를 이루는 方言區域(郡)과는 반드시 一致하는것은 아니다. 때로는 同一할적로 있지만 大概는 符合되지 않을적이 많다.

一郡을 單位로 하고서 調查할 境遇 最廣大한 一郡區域內에서는 一郡所에서 밖에 調查하지 못하게됨으로 이때 무엇보다 重要한것은 方言의 中心地點을 잘 着定할일이다. 郡이라 해도 의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그道の 中心地에 位置하는 郡도 있겠고 他道와 境界線上에 位置하는 郡도 있게된다. 이他道와 境界線上에 位置하는 郡의 方言은 近接 道の 方言과 相互交流하여 混雜性을 이루는것이 一般的傾向이다. 이럼으로 純粹한 該地方 方言의 中心地點의 着定이아

말로 話者의 嚴選과 마찬가지로 重要한 것이다. 地點의 選定은 幾何學的 距離相距에서 定할 것이 아니요 地形, 風土, 住民의 入往來歴과 移動, 外地와의 交流, 交通狀況等等 여러가지 點을 參酌한 우에 選定하여야 한다. 住民의 移動出入이 甚한 地域이면 이 地方出身者, 他 地方出身者가 往來 雜居하게 되는데 이때 他地方語가 浸透하여 本어와 方言의 純粹性を 깨트리고 混雜을 이르게 된다. 또 他地方과 交通 交流가 頻繁한 地帶도 마찬가지로 形便을 이룬다. 이런 住民移動이 甚하거나 他地方과 交通 交流가 甚한 地帶를 採集 中心地로 잡고서 調査하였을 境遇 잘못하면 他道의 方言을 記錄하고 그 地方 方言인줄 誤認하는 結果에 떨어지고 마는 수가 있게 된다. 이에 反하여 地形이 峻山峻嶺으로 막혀 있다거나 큰 河川으로 둘러 있다거나 하면 그 地域안에 들어온 風習이나 言語는 混雜하여 絶리없고 좀처럼 改新이 되들 안한다. 이런 地帶야말로 言語의 保守性이 維持되어 古語의 形態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하나 現代와 같이 交通이 頻繁하고 文化交流가 甚한 世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言語의 保守性도 나날이 破滅당하여 가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나 이런 地帶는 아직까지도 地方的 特殊性을 保持하고 있는 狀態이라 山嶺 或은 河川을 境界로 하여 方言區劃을 삼고 調査中心地를 着定하고 一方法이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섬(島嶼) 같은 地域은 言語의 特殊性을 지닌다. 「한 言語社會에 있어서 新生語는 그 社會의 政治文化 中心地에서 생겨나고 여기서 周圍로 퍼져 먼 地方으로 傳播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古語는 中心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心地에서 부터 같은 距離에 있는 地點에는 大概같은 系統의 古語를 發見할 수 있다」고 한 말은 有名한 「佛蘭西言語圖卷」의

著者 권리에론이 說破한 方言周圈說이지만 大概 地理上에서 볼때 遠距離에는 말할것도 없지만 峻峻한 山岳地帶 또는 河川附近에는 新語의 傳播가 잘안되고 또 늦어 古語의 形態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수가 많고 特히 떨어져 있는 섬(島嶼) 같은데는 그런 傾向이 많다. 濟州道에 韓國 어느地方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古語가 保存되고 있는것은 顯著한 一例이다. 이 섬은 그地域이 狹小하다 할지언정 調查地點에서 빼트려서는 안되리만큼 重要한 位置를 占하는 地帶이다.

또 注意할것은 이郡單位로 調查하는 境遇라 하더라도 國境附近이 할지 의파트 떨어져 있는村落은 작으나 할지언정 格別히 調查하여야 한다.

다음 地方別調查의 境遇에는 小地域 假令 邑, 面單位말지 或은 數個村落을 單位로 하여서말지 이를 區劃으로하여 調查하는것이다. 이 境遇에 있어서도 邑, 面單位가 行政區域線하고 반듯이 一致될것이아 넘은 郡單位 調查時의 形便과같다. 行政區域上으로 甲面에 所屬되어 있는部落이 方言區劃上 面圈內로 들어가는수가있다. 이것은 그地域關係로 그리되는수도있고 人文交流 關係로 그리 되는수도있다. 特히 近來 行政施策上 行하여지는 面區域이란 文化交流面에서 보아어떤 紐帶性이있어서 그리 劃定하는것이 아니요 地域狀態와 地方實情에 비추어 劃定되는수가 많다. 이에反하여 方言圈이란 言語 風習等의 類似性을 標準으로 하여 劃定하게 되는것이다. 實質的問題로 方言圈區劃과 行政面區劃과는 이와같은 差點이 있는것이다. 方言調查區域劃定에 있어서 이점에 留意하여야 한다.

小地域 假令 數個村落을 單位로하여 調查하는 境遇에 調查地點 着定上 또하나 注意하여야 할것은 乃終 方言分布圖를 作成하는데 不便이 없도록 作定할 일이다. 그렇지 않어도 一地點에 數個의 語形

이 함께 쓰이는 수가 있어서 좁은 紙面을 갖고 많은 記號를 一地點上에 나타내려면 若干 困迫함을 안한다。勿論 너무 混雜한 境遇이면 몇장의 分布圖에 나누어 記錄하게도 되지만。

우에서 調查區域 劃定에 對하여 若干 까다롭게 이야기 해왔다。그러나 言語란 무엇보다도 交通線에 따라 漸次 傳播되어 가고 人文 交流에 따라 相互浸透하며 混流한다。그럼으로 行政區域線과 같이 方言區劃線을 確然하게 그어놓고 한걸음 東으로 가면 A方言圈 한걸음 西으로 가면 B方言圈 한걸음 南으로 가면 C方言圈 하듯이 劃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것은 마치 文藝思潮을 時代區分하는데 있어서 몇 年 어느 달(月)以後는 自然主義時代 어느 달 以前은 浪漫主義時代! 하고 月日을 갖고 思潮時代를 딱잘라 區分할 수 없음과 같다。浪漫主義에서 自然主義로 넘어오는 過渡的 形態의 時代가 있듯이 方言區劃上에도 中間地帶란 것이 存在하게 된다。調查地點을 劃定할 때에는 이런 中間地帶에서 멀리해야 한다。

以上 調查地點을 選定하는데 있어서 全國的인 調查를 할境遇와 地方別 調查를 할境遇의를 區分하여 말하여 왔다。그런데 이 두區分은 어떤 規定的이라 할수있는것도 아니요 必然的이라 할수 있는것도 아니다。全國的인 調查를 할境遇라도 보다더 緻密한 調查를 하면면 邑面 아니 數個村落을 單位로 調查하여야 하겠고 地方別 調查의 境遇라 할지언정 數個村落을 單位로 꼭 調查하여야만할 法도없다。實際 調查에 當할적에 大概의 傾向이 그렇게 되는수가 있음으로 그리 區分하여본 方便에 不過하다。

(3) 調查事項의選定

調查事項 質問事項도 話者나 調查地點選定에 못지않게 重要하다。調查事項은 두어種類로 區分하여 選定하게 된다。全國一齊히 調查

한 一般的인 調查事項과 한 地方에 局限된 特殊한 調查事項 이 두 가지이다.

言語에는 大概 서울에서 쓰는말이면 咸鏡道, 平安道, 慶尙道, 全羅道, 濟州道 할것없이 두루두루 쓰여지는 것이 殆半이지만 또 어떤 語彙에 따라서는 한 地方에 밖에 안쓰여지는 것이 있다. 말하자면 그 地方 固有語들이 있는 것이다. 이진 어느 地方이나 若干式은 없는 地方이 없을 것이다. 地方에 따라 生活樣相이 달고 風俗, 習慣이 다름으로 이에 對한 生活感情의 表現인 言語가 또한 다르지않을수 없는 것이다.

方言이라면 一般이 생각하기는 標準語와 比較하여서 어딘지 異色 있는 地方的 特色을 가진말, 그것이 語彙의 相違이건 語法의 特色이건, 抑揚의 差異이건 하여놓고 어떤點에서나 標準語와 다른點이있든것을 方言이라고 본다. 勿論 이렇게 標準語와 比較하여 볼적에 어딘지 殊色다른點이 있는 것이 方言의 方言다운 點이기도 하지만 方言이라면 그렇게 狹義에서만 解釋할 것이 아니다. 좀더 擴大시켜 한 地方의 모든 言語現象全般을 方言이라고 부를수 있지 않을까한다. 假令 全羅道 慶尙道에서 「女兒」를 「가사내」라고 하지만 「기지바」라고도 한다. 이때 「가사내」는 元 慶尙道 全羅道の方言이지만 「기지바」도 또한 慶尙道, 全羅道の 方言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萬一에 「가사내」만을 方言으로 取扱한다면 그것은 慶尙道나 全羅道地方의 言語生活에對한 不充分한 記錄이 되지 않을수 없게된다. 또 한 事實인즉 「가사내」를 이 「기지바」하고 對立시켜서 생각할적에야 비로소 「가사내」의 共時論的 意義도 더 뚜렷해진다. 이와같은 點에서 方言은 狹義에 局限시켜 取扱할 것이 아니라 필수목이면 그 地方의 日常生活에 接受하는 모든 言語現象우에 擴大시켜 解釋하는 同時에 이

런 모든 言語現象을 採集對象으로 하여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理想인 것이다. 理想이 그렇지 좀처럼 實現을 보아질것은 아니다. 아마 어느나라의 方言研究에 가더라도 이와같은 各地方의 모든 言語現象을 採集研究해낸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그와같은 形便으로 大概는 어느局限된 語彙內에서 어느局限된 問題內에서 調查研究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一般的 實情이다. 事實에 있어서 한地方말만 하더라도 完全히 研究해 내려면 數年을 要하는 일임으로 한사람의 손으로 全國的 調查를 할境遇 各地方의 모든 言語現象을 두루두루 研究해 내기를 바란다는것은 無謀한 것이다. 아무리 言語學者라 할지언정 各地方의 모든 言語現象을 把握 하기란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이와같은 形便에서 올케 方言의 모든現象을 細々히 調查規明해 내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各地方別 그地方出身, 方言學者가 나와야 한다. 뿐만아니라 한결음 더 慾心을 말한다면 한地方의 方言內에서도 各部門別로 分擔하여 音聲學者는 音韻을, 語法學者는 語法을 究明해 내고 語彙 같은것은 그 專門部門에 從事하는 人士를 即動物學者는 動物에 對한것을 植物學者는 植物에 對한것을 調查해 내는 方式으로 되어진다면 方言學은 크게 進步되어 나가질것이다. 위에서 實際에 있어서 어느局限된 事項, 어느局限된 問題에 對해 研究하지 않을수 없다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事項을 調查 할 것이냐가 問題이다. 그것은 研究하는 目的에 따라 다를수 있다. 音韻研究를 目的으로 할境遇에는 그地方에 있어서 音韻上, 特異한것을 擇할 것이요, 語法研究를 目的으로 할境遇에는 그地方에 있어서 語法上 特異한것을 選定하여야한다. 一般的인 言語研究에서는 그地方特有한말 即 土語따위를 中心으로 選定하는것이 普通이다.

그런데 土語中心으로 그地方特有한 말을 採集한다 할지라도 大概

의 採集經緯인즉 미리 標語를 準備하였다가 이에 該當하는 方言을 記入하여 놓는수 밖에 없는데 그런즉 標語와 方言과는 반드시 一致하는것이 또한 아니다. 우에서도 말한바와같이 言語는 地域에 따라 다르다. 文化中心地의 말인 標語가 어느地方 方言에는 없을 境遇도 흔히 있다. 이때 採集者는 類似한 單語를 갖고 標語와 같은 것으로 遮斷하고서 잘못 記入해 놓는수도 있게된다.

또 準備해 놓은 標語에 準하여 採集하여 가지만 한다면 그地方 特有의 말은 自然 빠버려지는 수가 많다. 그렇지만 短時日內에 어느程度이나 採集해 보려고 하는者는 亦是 標語를 準備하였다가 거기서 該當하는말을 記入하여 넣어가는 式으로 함밖에 別道理가 없는 實情인것이다.

(4) 音聲表記에對하여

表記文字는 되도록이면 國際發音記號로 記寫하는것이 理想的이다. 그러나 이에 能熟치 못한분에게는 混亂되는 수가 있을것이다. 그런분은 國文字를 使用함이 便할것이다. 그리하여 長短音의 區分 強弱의 區分等 그地方方言의 特殊한 音現象에 對해서는 別段의 規約를 定하고서 表記하되 그實際의 音價는 凡例에서 仔細히 解明해 두어야 한다.

또 하나 方言採集上 難關은 記錄 記述問題이다. 方言學은 이方言記述의 確固한 地盤에 根據하지 않으면 안된다. 考古學이 嚴密한 科學的發見에 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건더지가 없다. 方言學은 科學的 調查의 結果 即 精確한 記述이 없으면 아무말도 할根據가 없게된다. 그런즉 方言은 物件이 아니다. 古墳이나 遺跡에 遺物들을 採集하듯이 方言採集은 아니된다. 言語는 發聲된 그瞬間에 없어진다. 그瞬間에 記寫하지 않으면 永遠히 없어진다. 오늘날 錄音機같은것이

依해 어느程度 保存되지만 거기에는 限度가 다아 있고 現在의 狀態로서는 音聲을 어떤 記號로 記錄하여놓아 그것에 依하여 그音聲을 現實적으로 生覺하여 념밖애 할수없다. 그런데 아무리 正確하게 表記하였다 하더라도 原音聲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그表記된 音聲이 어느一個人의 間接間的인 音聲인지 또는 그 音聲이 그方言에 있어서는 普通으로 해지는 音聲인지를 알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識別하기 爲해서는 그地方 여러사람에 對하여 調査를 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短時日內의 調査를 할境遇는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다.

그리고 또 實際 調査에 있어서는 調査者의 귀에들은 音聲이 話者의 發聲한 音聲과는 어느程度 어긋난 點이 있더라도 그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때 그때의 聽覺印象을 全的 信憑하고서 記述하여 놓음밖에 할수 없게된다. 卽 自己의 귀를 信賴하여 그런것으로 믿고서 記寫하는데 滿足하지 않을수 없게됨이 率直한 實情인 것이다. (二輯에 계속)

(筆者國文學科教授)

A·도자 (Dauzat) 著

李 基 文 譯

言語學原論

46版 411面

定價 900圓

民衆書館(서울特別市鍾路區通義洞35)